

<구원>은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것

자신을 이긴 승리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고통도 모르는 영원무궁토록 행복한 세계

우리 인생들의 분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향인 천당에서 살던 아담 하나님과 해와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 다시 되지만 하천에서 영원무궁토록 쾌락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는 고통이 없는 세계이며 그 세계는 눈물과 탄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고로 그 세계는 말로 할 수 없이 쾌락의 세계인 고로 그 쾌락의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도 늙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쾌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고통이 없는 세계요, 고단함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는 쾌락 속에서 시작해서 영원 무궁토록 쾌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쾌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늙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고통도 모르는 영원무궁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옛날의 모습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 쾌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졌을 때 그때부터 쾌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짓기기는 생활을 해서 완전히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해야 그래야 완전히 '나'라는 의식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나'라는 의식이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영이 살아서 주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를 짓이기고 또 짓이겨도 그래도 죽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를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짓이기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생활을 일삼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같이 반대 생활을 일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싫으면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면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짓이겨서 죽여 없애버려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나 들어가는 곳이지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승리자 하나님이 되어야, 자신을 이긴 승리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리자 하나님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승리자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살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라는 의식을 죽여야 됩니다. 나라는 의식을 죽일수록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나>라는 것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찾아서 하는 완전한 반대생활

이 사람이 밀실에서 생활할 때 거의 매일같이 통곡하면서 울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이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니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했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일을 했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



구세주 조희성님

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생활을 하라는 것은 마귀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좋아하는 일만 하던 사람인 고로 나라는 것이 하기 싫어하는 일만 찾아서 하게 되니까 자연히 마귀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점점 약해지면서 마귀가 나중에는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에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안을 계속해서 나를 짓이기고 또 짓이기는 가운데서 나라는 것이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살던 집을 찾아갈 수가 없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잊어버려

이 사람이 나라는 것이 죽어지니까 과거에 살던 집을 찾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50년 동안 부르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성이라는 사람의 나라는 의식이 죽으니까 조희성이라는 이름을 알 리가 없지요.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조희성이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조희성이 아닌 하나님의 신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알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가를 써도 알 길이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밀실 안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간 양복 안주머니를 무심코 뒤지게 되었어. 무의식적으로 그냥 안주머니를 뒤졌는데 주민등록증이 손에 잡혀서 나온 것입니다.

옛 사람을 죽여서 없애고 이긴자 하나님이 되는 <중생>

천당을 진짜로 가려고 한다면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단 나올 때 구원 얻기 위해 나오신 거죠? 그냥 놀러 나온 사람이었어? 놀러 나온 사람 없었지요. 어떻게 하든지 좋다는 천당 갈려고 왔죠? 나라는 의식이 옛사람이예요.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죽여야 천당 가는 거지 나라는 의식이 살아 있는 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는 의식을 짓이기고 또 짓이겨서 죽을 때까지 짓이겨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짓이기면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름이 뭘출 몰라요. 실재가 그래요. 이름이 뭘출 모르고 자기가 살던 집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중생이 되는 것이지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 있는 채로는 중생이 불가능 합니다. 완전히 옛 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린 다음 하나님의 신이 나라는 의식이 되어야 그래야 이긴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긴자라는 건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긴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마귀를 이겨서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마귀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해 앉았을 때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 좌정한 이긴자 구세주가 나와야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계 2:11).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환들을 풀터인데 그 돌 위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계 2:17). 무엇이 철장이나하면 말씀의 철장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는 가짜 구세주인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까, 못 믿게 됩니까? 못 믿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철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계 3:5). 이기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녹명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뻐지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계 3:12).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했으니까 이기는 자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긴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긴자가 나오기 전에는 인간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이긴자가 나온 다음부터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세주가 나와야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마귀의 세상인 고로 그 마귀의 세상에서 죄인들의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바로 이긴자입니다. 이긴자가 인간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틀림없이 구원입니다.*

조희성님의 발자취



나를 짓이키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죄와 상관없는 자격을 이루기 위해 결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짓이키게 되니까 점차 몸과 마음에 변화가 왔던 것이다. 초초로 영모님이 바라보지면서 계속해서 소변으로 피가 쏟아지며 몸이 가벼워졌다. 얼마나 자신을 짓이키는 생활을 했으면, 처음 밀실에 입고 들어간 옷은 헐거워져 입지 못하게 될 정도였다. 몸을 돌보지 않고 짓이키는 생활을 하게 되니, 몸은 가죽과 뼈만 남아서 얼굴도 핏색이 사라져서 노란색이 되었고, 몸은 가죽과 뼈만 남아서 얼굴도 핏색이 사라져서 노란색이 되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송을 작사·작곡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평양 신앙리 형무소에서 공산당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하는 날까만 기다린 사람이다. 당시

에 이 사람은 모든 전제를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지어서 불렀던 곡이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의 처지를 그대로 표현한 찬송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옥중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이다. 처음 밀실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서는 세상에 나가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의를 하고 밀실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자가 못 될 바에는 목숨을 끊어버려 끝장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긴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결판을 내려야했던 것이다.

그렇게 죄와 상관없는 자격을 이루기 위해 결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짓이키게 되니까 점차 몸과 마음에 변화가 왔던 것이다. 초초로 영모님이 바라보지면서 계속해서 소변으로 피가 쏟아지며 몸이 가벼워졌다. 얼마나 자신을 짓이키는 생활을 했으면, 처음 밀실에 입고 들어간 옷은 헐거워져 입지 못하게 될 정도였다. 몸을 돌보지 않고 짓이키는 생활을 하게 되니, 몸은 가죽과 뼈만 남아서 얼굴도 핏색이 사라져서 노란색이 되었다. 그때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은 아마 환자로 보였을 정도였으며, 또 이 사람을



은광장교회회를 세운 유 장로를 전도한 후 신바람이 나서 밀실로 돌아왔는데...

알고 지낸 사람은 몰라볼 정도였다. 하루하루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자유유희를 범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고 매달렸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되니, 1980년 2월 초에 "이긴자가 되었다" 하여 해와주님께서 새 옷도 해 주시고 신발도 사 주시면서 전도를 나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명령에 따라 걸어서 집

집마다 전도를 하며 시흥 일대 멀리 포리까지 매일 전도를 다녔다.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라니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은혜체험을 하며 병이 낫기도 하였다. 하루는 은행리에 있는 은광 장로교회의 주임장로인 유장로를

전도하였다. 유장로는 전도 받은 지 3일 만에 은혜를 받아 소변으로 피를 쏟은 후 그것을 보여주며,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며 몹시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이 교회를 조목사님께 드리겠으니 내일부터 단에 서서 예배도 인도하시고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였다. "그러시다면 우선 장로교회 간판을 떼어버리라"고 하였다니 유 장로가 묻기를 "그럼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전도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니 당장 전도관 간판으로 바꿔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유 장로와 그의 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장로교 간판을 내려서 도끼로 쪼개버리고 전도관 간판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전도관 간판으로 바꿔 달고 개관 예배를 보게 되었을 때, 당시 기성교회 측 한국 복음 전도회 회장이었던 신영균 목사를 주축으로 차재복 장로 등이 이 사람을 만나 전도를 받았다. 예배를 다 보고 나서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랍고도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성교회 하나가 송두리째 간

판을 바꿔 달고 넘어오게 된 것이었다. 차재복 장로 등은 여의도 광장같이 넓은 데서 대규모 부흥집회를 갖게 되면 머지않아 이 세상이 전도관 천지가 되겠다며 좋아하였다.

그 은광장교회에서 개관 기념집회를 마치고 밀실로 돌아오니 기분이 날 듯이 기쁘고 좋았다. 그런데 밀실에 들어서자마자 해와주님께서 "조사장저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떨어졌다. 저 마귀 새끼 밀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궈!"하고 천천벽력 같은 교함을 치시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하늘이 노래지고 온 전실에 맥이 확 풀렸다.

그 자리에서 땅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좋아하는 것이 죄라니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손으로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해와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밀실 식구들도 모두 흐느껴 울었다. 뒤돌아 고개를 숙이시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해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라"고 하시고는 밀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다.*